

18세기 제주문인 정체성의 일단*

: 장한철 『표해록(漂海錄)』의 경우

정환국**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시좌
2. 18세기 제주문인 장한철(張漢喆)과 『표해록(漂海錄)』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에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 국문초록

이 글은 장한철의 『표해록』 분석을 통해서 18세기 제주 문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제주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에서 독특한 위상으로 차지하고 있지만, 대개 육지 중심의 시선으로 타자화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경향은 제주 고전문학에 대한 온전한 접근이 못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제주 출신 문인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함으로써 내부의 의식과 시선에 주목해 봐야 한다. 이

* 본 연구는 2020년도 동국대학교 전략연구단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S-2020-G0001-00046)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junghk1114@hanmail.net

연구는 그 일환으로 장한철의 『표해록』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표해록』은 표류문학으로써 주목되어 왔지만, 여타 표해록류와는 달리 작자의 내면과 외부세계에 대한 대응의 면모가 흥미롭게 구현된 저작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먼저 장한철의 생애와 함께, 『표해록』이 중앙 정계 등에서 읽힌 정황을 토대로 이 저작이 제주 문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된 지점을 포착하였다. 다음으로, 『표해록』의 내용 중 선상 갈등과 외부세계와의 접촉 및 대응 등을 중요한 면모로 보고 그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표류하는 배 안에서의 동선인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장한철이 제주인, 또는 뱃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해적선 및 상선과 조우하면서 외부세계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유가지식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그 대응 과정에 투영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헌과 지도 등을 활용하여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점을 특정, 이것이 일반/육지 지식인의 지적 역량과는 다른 제주 문인만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표해록』은 18세기 제주 문인의 자기정체성이 잘 드러난 저작이며, 이를 통해 제주 고전문학의 한 특징을 상정할 수 있었다.

- 장한철(張漢喆), 『표해록(漂海錄)』, 표류체험, 제주와 제주인, 제주문인, 정체성

1. 프롤로그: 제주 고전문학 연구의 시좌

인조 효종 연간의 제주인 김복수()는 안남에 표착했다가 일본을 거쳐 생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가운데 하나인 <오돌또기>는 그가 베트남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로 지금

껏 전승되고 있다. 그에 관한 전승담에는 표류와 생환, 그리고 회한의 정서가 깊게 배어 있어서 과거 제주인의 현실을 응축한 사례로 손색이 없다.¹⁾ 한편 18세기 말 목만중(, 1723~1810)은 「김복수전()」을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주에서 전승되는 양상과는 판이하다. 표류인 김복수를 베트남을 교화시키고 서학을 배척한, 다시 말해 조선유교를 해외에 이식시킨 주체로 추켜올렸다. 그 시선은 저 바다 밖 변방의 표류자가 조선 유교의 침병 역할을 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자는 이 사례를 두고 김복수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혀 실상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운바 있다.²⁾ 요컨대 제주에서 전승되는 김복수와 육지인, 특히 조선후기 사대부의 시선에 포착된 김복수는 아예 다른 존재였다.

물론 한 인물이 후대에 다양한 버전으로 해석되는 점 자체는 흥미로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을 벗어나 과도한 방향으로 변용되는 것은 문제다. 특정한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만중이 김복수를 입전한 과정을 보면 다소 환기할 점도 없지 않다. 작품의 끝에 붙인 사평()에, 처음 제주 출신의 장령 변경우(, 1745~1836)가 김복수 이야기를 강준흠(, 1768~1833)에게 들려주어 이를 강준흠이 기()로 남겼으며, 목만중은 이 기문에 의거하여 다시 입전했다는 정보가 들어 있다.³⁾ 목만중과 강준흠은 동파()로 서학을 배척하는 공서파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미 강준흠의 기문에서 어느 정도 변형된 김복수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⁴⁾

1) 이에 대해서는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오돌또기와 김복수』, 일지사, 1968, 252~255쪽. 1956년 채록)과 이석범, 『제주전설집2』(『오돌또기』, 제주문화원, 2012, 269~277쪽) 등 참조.

2) 정환국, 「조작되는 하위/하위주체들-횡재 소재 표류서사의 변이양상과 하위주체의 성격」, 『민족문화사연구』 68호, 민족문화사학회, 2018, 152~156쪽.

3) 목만중, 「『』(『』권16). “ (중략) , (중략) . ” 참고로 이 점은 안재희, 「여와 목만중의 표류인 전기 「김복수전」 연구」(『한국문화』 3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에서도 언급된바 있다.

4) 현재 이 은 따로 남아 있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왔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이 내부에서 생산된 작품들과 타자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작품들이 제주 고전문학의 두 축을 형성한다. 그에 따른 연구도 자체의 독자성을 강조하거나 타자에 의해 조정된, ‘역외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두 가지 방향이나 시각이 교차되거나 정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이것이 필자가 판단하는 제주 고전문학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현상이자 난제이다.

그런데 이 점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제주 고전문학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쪽은 독자성을, 또 한쪽은 역외성을 강조하다보니 제주 관련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에서 별개의 것 인양 치부되고 있다. 당연히 제주 고전문학은 한국고전문학의 다양성(또는 다종성)과 입체성을 구현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판 영역이 아닌 한국고전문학의 주요 범주로 상정되어 그 확장성에 관심이 두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고전문학이 한국고전문학의 교집합 안에서 정합적으로 작동된다면 양자는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고전문학 연구에서 제주 고전문학은 중요하다.

한편 최근 제주 출신 문인들의 저작이 소개되면서 제주민요나 무가 같은 집단적 창작물과는 결을 달리하는 의식세계의 일단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육지 문인들의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과도 다뤄볼 여지가 생겼다. 제주와 의주에 특설했던 승보시()는 제주지식인들이 중앙과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급제자들 중에는 출륙()을 하는 등 중앙정계와 지방관을 수행하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거나, 제주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이지만 일반 제주 백성과는 구별되고, 육지지식인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던 이들 제주문인들의 의식세계는 그 자체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의식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집이나 관련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문집은 1790년대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장령 등을 역임한 변경봉(, ?~?)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그 외에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

기까지 활약한 문인들의 문집이 대부분이다.

마침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장한철(張漢喆, 1744~?)은 변경봉보다 10년 먼저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그런데 그는 따로 문집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표류 체험을 『표해록』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다른 표해록과는 달리 그의 내면세계와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후반 제주문인의 의식세계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⁷⁾

2. 18세기 제주문인 장한철(張漢喆)과 『표해록(漂海錄)』

장한철은 1770년 가을 제주 향사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 마을 어른들의 주선과 세 읍에서 마련해준 여비로 곧장 회시를 치르기 위해 상경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첫 육지 나들이 길에서 표류하게 되었고, 생사를 넘나들다 생환한 끝에 남긴 기록물이 『표해록』이다. 이후 1774년 제주 승보시에 다시 합

-
- 6) 김새미오,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집, 영주어문학회, 2010.
- 7) 그동안 『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처음 정병욱이 이 자료를 학계에 소개한 이래(『표해록』, 『인문과학』 6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961) 그 서사적 성격(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과 야담으로의 전이 양상(윤치부,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정솔미, 「장한철 『표해록』의 야담적 전이양상」 『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해외체험의 면모(김경옥,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 『역사학연구』 48집, 호남사학회, 2012) 등이 조명되었다. 최근에는 제주도과 섬사람들의 면모에 주목하거나(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텍스트 형성 문제를 밝히는 등(강문중, 「장한철 <표해록>의 텍스트 형성 동인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3집,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점차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는 없었다.

격하고, 1775년 문과 별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관력은 1775년 6월 가주서(), 1777년 8월 성균관 학유(), 1779년 2월 학록(), 6월 학정(), 7월 성균박사, 1780년 6월 전적(), 12월 이조의 가낭청(), 1781년 6월 상운찰방, 1783년 흡곡현감, 1787년 대정현감, 1792년 평시서 주부()를 역임하였다. 특히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역폐()를 진달하여 정조로부터 ‘먼 지방 출신으로 관의 일을 힘껏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치적으로 흡곡현감으로 승진된바 있으며,⁸⁾ 대정현감으로 있을 때는 당시 유배인 김우진()의 출륙을 막지 못했다는 죄로 의금부에 압송되어 투옥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약 3개월 만에 풀려나 평시서 주부로 서용된 사실이 확인되며,⁹⁾ 이후의 사적은 보이지 않는다.¹⁰⁾ 따라서 그의 만년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부침이 있었지만 제주 출신 인사로는 전례에 없는 관력을 거쳤다는 점에서 장한철의 중앙 정계 진출은 주목할 만하다.¹¹⁾ 공교롭게도 그를 이어 약 10년 뒤에 대정 출신으로 변경우와 변경봉이 연이어 과거에 합격하여 장한철과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 특히 변경우는 1790년대에 사헌부 장령() 등을 지내 장한철보다 높은 품직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 변경우와 변경봉은 육촌간으로 대정의 유력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 장한철의 집안은 제주에서 그리 유망하지 않았다. 그의 6대조

8)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11월 10일조. “ : , , , , , . ”

9) 이 시점이 1789년 6월경이다. 여기까지의 관력 사항은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 등을 참조했다.

10) 『표해록』을 한문단편으로 재구한 『기리총화』 제25화「
」의 제목 아래
에 “ , ”라는 주가 달려 있다. 고성군수를 지냈다는 것인데, 실제 고성군수를 지냈는지 아니면 상운찰방이나 흡곡현감을 지낸 관력을 이렇게 잘못 표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장한철의 후손이 강원도에 살았다는 전언도 있는 걸 보면 이 기록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11) 같은 애월 출신으로 강봉서(, 1746~1823)도 장한철과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하여 1793년에는 장령을 지낸 바 있긴 하나, 장한철보다는 관력이 늦은 편이다.

인 장일취()가 입도조()인바, 애월에 정착한 시점이 17세기쯤이었다. 그는 애초 제주 사족 출신이 아니었다. 증조 양소(), 조부 선일(), 부친 차방() 등은 향시에 입격한 예도 없다.¹²⁾ 더구나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 장한철은 중부()인 쌍오당() 장중방()에게 양육되었다. 그는 『표해록』에서 숙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과거공부에 매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¹³⁾ 그러나 장중방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도의 양반제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달랐다고 한다. 즉 유학()이나 유생() 등 과업을 일삼는 부류가 있었는데 주로 평민층이 담당해 왔던 좌수나 별감, 훈장 등의 자리도 양반이 차지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두 층위의 양반이 존재했던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장한철의 집안은 후자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다. 비슷한 시기 대정의 변경우, 변경봉 집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더구나 그는 부친도 일찍 작고한 터 녹록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그가 『표해록』을 정리한 시점, 즉 그의 의식세계가 드러나는 텍스트를 구현한 것은 나이 26세 때였다. 이런 정황은 장한철의 제주문인으로서의 처지를 확인하는데 환기할 지점들이다.

한편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 출항한 당일에 표류를 시작하여 이듬해 1월 6일 청산도에 도착한 이후 5월 8일 제주로 귀향하기까지의 기록이다. 굳이 3월 3일 서울에 올라가 회시에 낙방한 일과 제주에 돌아온 뒤 불귀의 객이 된 생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조문하는 등 표류 이후의 행적까지 덧붙

12) 제주 과거 합격자를 기록한 『 』이나 『 』은 물론, 제주 향시 합격자 기록인 『 』에도 이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장한철의 가계는 장한철(김지홍 역), 『표해록』(지만지클래식, 2009)의 「해설」 부분을 일부 참조했다.

13)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 자료는 친필본으로 알려진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을 기준으로 한다.

14) 조성윤, 『조선 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사회와 역사』 27집, 한국사회사학회, 1991, 185~195쪽.

붙였다. 그리고 그 달 하순에 이를 정리하였다.¹⁵⁾ 표류 경험이 당장 정리된 사례다. 물론 그는 이미 호산도()에 1차 표착했을 때부터 자신의 표류 경험을 적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체험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 이 『표해록』은 그가 5년 뒤 정계에 진입했을 때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문필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된 정황이 발견된다. 1781년 그는 상운찰방으로 있을 때 조정에 입시하여 국왕을 접견할 기회가 있었다.

상운찰방 장한철이 임금을 알현하였다. 임금이 “도정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낭청으로 있었지.”라고 하자, 서명선이 아뢰었다. “이 사람은 제주에 살고 있는데 글을 잘 짓습니다. 그의 『표해록』을 보니 제법 볼만하였습니다.” 임금이 물었다. “어느 곳으로 표류를 했더니?” 장한철이 아뢰었다. “표류하여 안남국이 이르렀는데 그 중에는 대명 유민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¹⁶⁾

임금은 그가 낭청으로 있을 때를 기억했고,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영의정 서명선(, 1728~1791)은 그가 제주 출신이며 글을 잘하는 인물로 평가하면서, 그의 『표해록』을 직접 읽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국정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서명선이 이 책을 보았으니 다른 조정의 신료들도 접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분명 장한철이 서울에 올라올 때 이 『표해록』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조정 신료들에게 읽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어 정조는 그에게 어느 곳을 표류했는지 물었는데, 그 답이 좀 이상하

15) 『표해록』 필사기. “ ”

16) 『승정원일기』 1781년 11월 5일(계묘)조. “

‘ : ‘ , , : : ‘ ? : ‘ , , , ’ ”

다. 표류하여 안남국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대명 유민도 있어서 조선 사람인 자기 일행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차이가 있다. 아마도 베트남 국적의 상선에 구출된 정황과 선상에서의 임준() 일행과의 조우를 대명 유민의 환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유자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이와 연관된 제주 전승담도 있다. 장한철이 과거를 보러 가서 이 표류기를 국왕에게 보이고, 국왕은 이를 가상히 여겨 대정현감에 제수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¹⁷⁾ 물론 실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장한철과 『표해록』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 저작이 그의 관직 진출에도 일정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 있다 하겠다. 아무튼 『표해록』은 장한철의 역량을 과시하는데 직간접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저작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당시 육지 인사들에게도 관심거리였다. 유만주(, 1755~1788)는 앞서 서명선이 국왕에게 『표해록』의 존재를 보고한 그 해에 이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일기 『흙영()』 신축년(1781) 6월 초4일조에 “ ()”이라 하고, 이어서 이 책을 통해 생사의 고뇌에서 어느 정도 초월하게 됐다는 감회를 적고 있다.¹⁸⁾ 유만주는 이틀 뒤에도 계속 『표해록』을 읽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 책에 나오는 다섯 가지 신기한 장관으로 신기루와 고래 및 용오름, 쌍진주와 상선()을 들고 있다.¹⁹⁾ 이

17)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원, 1985, 373~374쪽. “장한철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잇었는디 바람이 불어서 우리국을 떠내려가서 자꾸 표류기를 일기를 죽었다고. (중략) 당도해서 이제 목심을 살아서 그땃해 또 서월 과거를 보러 갔덴 말여. 대정현감을 벌레 가니까, 그 표류기를 배왔덴 말여 표류기를 배우니, 아 이왕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이 표류기를 따까서 내안티 배와 본 백성은 허나도 읍다 허나도 읍는디 너 소원이 뭐냐?’ 허니 ‘내 대정현감 허나 소원입니다.’고.”

18) 유만주, 『 ()』 신축부(1781년) 6월 초4일조. “ () , () , () , () . ”

19) 유만주, 위의 책, 6월 초6일조. “ () , () , () , () , () , () . ”

처럼 한 서울의 문사에게 이 책은 사생의 문제를 음미하고, 바다 위의 장관과 사건을 경험하게 한 흥미로운 텍스트로 수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표해록』은 19세기 전반 이현기(, 1796~1846)의 『기리총화』와 『청구야담』 등에서 한문단편으로 각색되기에 이른다.²⁰⁾ 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듯이 한문단편 중에는 기존의 문집 등에서 전래된 이야기가 적지 않으나 이처럼 실기 한 편이 이른 시점에 야담화된 예는 없었다. 그만큼 흥미로웠다는 증거다.

이렇게 『표해록』이 당대에 관심을 끈 데는 장한철의 표류 체험이 강렬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표류 기록과는 달리 그 소재와 구성 등에서 서사적인 흥미를 끌 만한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도 일부분 지적되었지만,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인이 표류한 기록은 많지만 제주인이 직접 경험한 표류기록을 작품으로 남긴 사례로는 이것이 유일하며, 따라서 육지인이 남긴 표해록과는 그 심상이 상당히 다르다. 둘째, 이 작품은 표류와 항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수렴되었다. 즉 뱃사람들의 습속, 신기루와 용오름, 해산물 횡재, 해적과의 조우, 무역선의 구조 등등이 요소요소에 배합되어 흥미를 제고한다. 자칫 작위적이란 느낌이 들 만큼 다양한 요소들이 침입되어 있다. 셋째, 다른 표해록류에서 볼 수 없는 저자의 내면심리와 승선한 이들과의 갈등 등 선내(

)의 서사가 다채롭다. 넷째, 꿈이나 복선에 해당되는 소재를 적절히 배치하여 문학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점은 이를 각색한 『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의 이야기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쪽은 작자의 내면심리나 선상의 갈등, 그리고 상기한 문학적 요소들이 사건 위주로 구성되면서 대부분 탈락해 버렸다. 최근 연구에서 이 한문단편화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

20) 특히 처음 한문단편화 된 『기리총화』(입형택소장본)에는 이야기 제목을 ‘
’이라고 하여 『표해록』을 그대로 가져와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청구야담』에서는 주인공을 3인칭으로 처리한 것에 반해 여기서는 1인칭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가한바 있다.²¹⁾ 그러나 사건 위주로 구성하다보니 주인공의 내면이나 갈등의 국면들이 오히려 반감돼 재미가 덜하다. 그만큼 『표해록』은 문학적인 요소가 풍부한 저작이다. 단언하건대 이 책은 최부() 『표해록』의 전통을 이은 것이지만, 다른 표해록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18세기 한국 실기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그것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제주 문인이 자신의 의식세계로 구성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3. 장한철의 표류 체험에 구현된 제주/제주인과 외부세계

『표해록』의 풍부한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와의 대응 등은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확인된다. 표류하는 배 안에서 동승자들과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그 하나이다. 기실 표해록 중에 이 자료만큼 선상에서의 사건을 다룬 것도 없거니와, 그런 속에서 장한철의 내적 번민도 과감 없이 드러나 있다. 다른 하나는 배 밖, 즉 외부세계와의 조우이다. 안남 국적의 상선을 만나 1차 구출되었다가 다시 청산도에 표착하여 생환하기까지 계속 다른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한철의 의식세계의 일단이 드러나면서 각각의 층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 ° °

애초 장한철은 제주 출신임에도 항해의 경험이 전무했던 것 같다. 그는 승선한 직후 지나치는 화탈도(관탈섬)를 보고 저곳에 사람이 사는지, 제주와 육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묻기 바쁘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화근이었다. 화가 난 사공을 본 노잡이 고득성()은 ‘배에서는 손을 들어 한 곳을

21) 정솔미, 앞의 글 참조.

가리키거나, 바다 위에서는 길의 멀고 가까움을 물어서도 안 된다’는 뱃사람들의 속기()를 알려준다.²²⁾ 장한철로서는 당혹스러웠다. 그러던 중에 큰 고래가 나타나 배를 삼킬 듯 덩벼들었다.

뱃사람들은 모두 질린 낫빛으로 배 안에 엎드려 고래와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다. ‘관세음보살’을 외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이윽고 고래가 지나가 멀어지고 나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도 안정되었다. 나는 뱃사람들을 나무랐다. “소리 내거나 기척하지 않으면 저것이 배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야. 그 게 웬지 관세음 소리는 무엇 하러 내는가? 저것이 도를 닦는 중도 아니거든, 어찌 관음불이 존귀함을 안다고? 설령 관세음의 남은 영혼이 있다하더라도 어찌 저것을 읊어매 우리 배를 지켜주겠는가? 자네들이 관음에게 비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뱃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이 그렇지 않다 하며 저들끼리 속삭였다. “배안에서의 일은 당연히 뱃사람에게 맡겨 뉘야지 어찌 저이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저리지?”²³⁾

뱃사람들이 생사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외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동아시아 해양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관음신앙이다.²⁴⁾ 그런데 장한철은 이런 뱃사람들의 오

22) 『표해록』 12월 25일조. “ (중략) , , : ‘ , , , , ’ ”

23) 『표해록』 12월 25일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번역은 김지홍 역, 앞의 책을 참조하되 필자가 대폭 조정하였다.

24) 그 사례가 초기 동아시아 표류담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환국, 『동아시아 서설』,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연구원, 2017 참조.

랜 습속을 완전히 무시한다. 관음에게 빌어서 무슨 득이냐는 것이다. 예의 유가지식인이라면 얼마든지 할 만한 발화이다. 그렇다고 제주인 장한철이 뱃사람들의 습속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고 짐작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의도적인 도발일 수 있다. 이것이 뱃사람들의 생리와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기에 향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저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논리로 제격이었다. 뱃사람들의 ‘뱃일은 뱃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지식분자가 나설 게 아니다’는 멘트는 문인 장한철이 바다의 금기와 생리에 대해 도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향해 첫날 폭풍우에 휘말려 표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실 선장격인 사공 이창성()을 비롯해 동선한 누구도 지금까지 본격적인 표류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 당연히 뱃사람들은 표류하고 나면 죽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여겼을 터다. 실제로 이들은 표류가 시작되자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장한철은 자신의 식견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피기 시작한다. 바람과 방향에 따라 중국이나 유구 같은 육지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 것이었다. 이런 생환의 기대로 뱃사람들은 점차 장한철을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배안에서의 위치가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여 사안마다 다툼은 지속되었다.²⁵⁾ 그러다보니 걸핏하면 뱃사람들을 두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며 불만을 쏟아낸다.²⁶⁾ 물 받는 일을 두고 제주 상인 김재완()이 약담을 해대자, 그를 두고 장한철은 사납고 흉포한 자로 매도해 버린다.²⁷⁾ 뿐만 아니다. 자

25) 『표해록』 12월 26일조. “

26) 『표해록』 12월 25일조. “(전략)

신과 같은 처지의 김서일()마저도 악다구니를 펴 붙는다.

“집사는 일찍이 ‘남아가 이 섬에 사는 건 가마솥의 물고기 신세와 다를 바 없으니, 어찌하면 태서인의 40리나 되는 종려선을 타고 사해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장관들을 볼 수 있을까. 내 평소 소원이 이러하네.’라고 하더니, 지금 일엽편주를 타서 만리창파에 떠다니니 흥취는 어떻고 원하는 바는 이미 퍼셨소?” (중략) 김생이 순간 나와 등을 지며 드러누워서 “내 아들 손자들과 자네 아들 손자들과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거야.”라고 하였다.²⁸⁾

언젠가 장한철은 김서일에게 제주에 살고 있는 게 솔에 들어있는 물고기 신세라며 한탄하면서 서양의 종려선을 타고 세계를 주유할 꿈을 얘기했던 모양이다. 잠깐이지만 호기로운 그의 모습이 김서일의 이 발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김서일은 지금 이 작은 배 안에서 표류하고 있으니 어 떠냐며 비아냥거린다. 괜히 자신을 꼬드겨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원망하는 것이다. 이런 김서일에 대해 장한철은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데, 같은 제주 출신 유자이거나 지금 뱃사람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불안감을 숨긴 채 애쓰는 자신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저들과 한통속이 된 것이 못 내 아쉬웠다. 그럼에도 그를 다독이려 애쓴다.²⁹⁾

실제 장한철은 누구보다도 이 표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비록 자

27)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28)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 (중략) : ‘ , , , , ?’ ”

29)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 : “ , , . ”

아! 뱃사람들의 업이란 배와 노를 집삼아 오랫동안 바다 위에 있으니, 그 일이 지극히 고될 밖에. 하물며 아침에 배 한 척이 표류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고, 저녁에 배 한 척이 침몰하면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됴라! 이 때문에 뱃사람은 그 뱃를 고향 선산에 묻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탐라 사람들은 뱃일 피하기를 마치 함정과 덫 피하듯 한다. 죄를 지어 교화하기 힘든 백성이 있으면 으레 뱃일을 맡게 하는데, 이는 사지에 두는 것이라 다들 반드시 죽게 되리라 마음먹고 더욱 더 어질지 못한 술수를 부리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들을 ‘죽일 놈’으로 못 박고 만다. 허나 지금 저들의 행실을 보면 본래 그 성품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도에서 바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게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마음이 악해서가 아니라 습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배가 표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진심으로 슬퍼한 것은 나를 따르고자 해서이지 나의 덕이 저들의 악함을 교화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성품이 본래 착해서, 죽을 때 선한 말을 하는 것이리라. 내 이제 참으로 세상에는 본성이 악한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겠다. 무릇 선하고 악한 차이가 있음은 말은 일에 따라 만들어지고 길들여진 차이일 뿐이다. 맹자의 성선설을 나는 여기서 그 실증을 얻었다.³⁴⁾

청산도 서덜에서 배가 난파되어 일부만 살아남았다. 그들은 장선비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통곡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다. 뱃일의 고됨과 죽음, 그것은 분명 육지인의 삶과는 다른 것이란 점,

34) 『표해록』 정월 6일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뱃일을 피하려고 했고, 그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 등도 제주 출신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터다. 여기에 착한 심성의 이들이 고된 뱃일을 통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류를 통해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맹자의 성선설까지 끌어온 점이 좀 지나치기는 하지만, 이 뱃사람들에 대한 음미는 저들의 생리와 현실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한 부분이라 하겠다. 처음 장한철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며’ ‘어둡고 사나운 자’이던 뱃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제주 문사 장한철과 제주 뱃사람들은 그 위계를 넘어 그야말로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되었다.³⁵⁾

이 제주사람들의 재발견은 다른 표해록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는, 오직 이 제주인이 기록한 『표해록』에서만 구현된 면모이다.

‘ . . . ’

장한철 일행은 유구의 호산도()라는 무인도에 표착하면서 본격적인 외부세계와 접촉하게 된다. 그런데 장한철은 남해()의 세계, 다시 말해 한반도가 제외된 동서의 무역라인이 펼쳐진 남양 바다에 접어들면서 자신들이 탐라인임을 숨기려한다. 그것은 17세기 초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었다. 일명 ‘유구세자 살해 사건’이다. 우선 장한철은 이 사건을 신해년(1611) 제주에 표착한 유구 태자가 제주목사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

35) 이에 앞서 표류 중에 한라산을 발견한 이들이 ‘ ’과‘ (선문할망)’을 외치면서 울며 환호하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 속에 장한철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인으로서의 상징성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표해록』 정월 5일조. “ , (중략) , : ‘ , : ‘ , ! , , , , , , , . ”

이 목도하고 있는 남양의 광경은 조선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문제는 앞서 장한철이 염려했던 상황이 이 무역선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구출된 장한철 일행이 일본을 향해 가던 중 선상에서 한라산을 보고 환호작약한 게 화근이었다. 이윽고 배 안에서는 생각지 못한 소요가 일어났다.

곧 임준이 저들과 말을 주고받는 게 보이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얼마 뒤 서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 하였다. 두건을 쓴 임준 등 수십여 명이 한쪽에 둘러섰고, 머리를 깎은 80명도 갈라서서 다른 한쪽에 모여들었다. 저들은 험악하게 굴며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성난 눈으로 고�함을 치며 임준 일행과 한바탕 붙을 기세였다. 임준 일행은 얼굴빛을 누그러뜨리고 저들을 달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정오가 넘어 서고 있었다. 그러나 통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저물녘에야 임준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옛날 탐라의 왕이 안남의 세자를 살해했기에 안남 사람들은 상공이 탐라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칼을 가지고 배를 갈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었소. 우리가 극구 달래고 달래 겨우 저들 마음을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원수들과는 한 배를 타고 갈 수 없다고 하는구려. 상공과는 여기서 길을 나누어야겠소’ 세상에 전해지기로 옛날 제주목사가 유구 태자를 죽였다 했는데 그것이 유구 세자가 아니고 안남 세자였던 말인가?40)

39) 해외 무역선의 규모와 제도를 기록한 것 중에 이렇게 상세하고 현실감 있게 묘사한 사례도 따로 없다.

40) 『표해록』 정월 5일조. “(전략) , , . , , , , , . : ‘ , , , . , , , . ?”

이 선상에서 벌어진 임준 측과 베트남인들 사이의 살벌한 대치는 다름 아닌 구조한 일행이 탐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요를 겪으면서 장한철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제주에서 살해된 이가 유구태자가 아니고 안남세 자일 수 있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한다. 결국 이 때문에 장한철 일행은 이상선에서 강제로 하선하여 다시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광해군·인조 시기에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를 만큼 논란이 컸으며, 피의자로 이 시기 제주목사를 지낸 이기빈()이 지목된 바 있다. 또한 후대에도 이를 두고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거나 조명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의 실상을 따지는 연구도 여러 편 제출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1610~1612년 사이 제주에 표착한 황당선과 이를 공격한 두세 가지 사건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허구로 보고 있다.⁴¹⁾ 이는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져왔고,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전설’로 파악하고 있다.⁴²⁾ 특히 일본쪽에서는 사츠마와 베트남 사이의 교린과 상업 활동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했다.

문제는 분명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살해된 주체가 태자가 아니었을 뿐이다. 그러니 조작된 허구나 전설로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유구 상선이었던 안남, 또는 사츠마 상선이었던 표착한 이들은 재물을 약탈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한철이 안남 상선에서 겪은 이 경험은 이 사건을 새롭게 환기시켜 준다. 이를테면 당시 제주에 표착한 상선에는 유구 선원과 베트남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해역세계에서는 유구와 베트남은 그 피해 당사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정작 우리 쪽에서는 이런

41) 홍진옥,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42) 후지타 아키요시(), 「17 『천리』(천리 대 조선학회 2019년 발표집).

정황도 갈파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 소란을 통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 제주목사의 탐욕과 표류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제주’는 해역세계에서 폭력적인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었고, 무고한 제주민은 선상에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했다.

주목할 것은 장한철과 대명 유민 임준의 만남이다. 임준과 그 일행은 장한철을 조선 선비로 대접했고, 장한철은 이들이 야만과 폭력이 앞서 바다 위에서 만난 은인이었다. 여기 대명유민을 대하는 장한철의 태도와 임준의 반응은 예사로 넘길 부분이 아니다.

나는 그가 명나라 사람임을 알고는 절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써서 말했다. “(중략) 이제 만 리 떠도는 물결 위에서 다행히 상공을 만났으니, 이는 사해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일가의 신자()와 같습니다. 만일 구조해 주어 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의 삶은 황명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곧 두건을 쓴 그를 보니, 나의 글을 읽으면서 슬퍼 오염하는 뜻이 말과 얼굴빛에 넘쳐났다. 붓을 잡아 점을 찍었다. 또 읽고 그때마다 점을 찍었다.⁴³⁾

대국의 은인을 만난 감격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임준을 두고 ‘사해의 동포이자 한 나라의 신자’라며 눈물을 흘린다. 아울러 자신이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거듭 재조지은()을 입은 격이라며 송명의리를 곧 추세운다. ‘두건을 쓴’ 임준도 장한철의 정성스런 글을 보고 감격해 한다. 지금 고향을 떠나 바다 위에 난민이 된 장한철과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

43) 『표해록』 정월 2일조. “ , : (중략)
 , , , ? , , , , , .”

는 임준은 중화를 매개로 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때면 중앙 학계에서는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북학’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즈음이다. 그런 터라 이들의 만남이 시절 지난 행태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이때도 여전히 다수의 조선 유자들은 장한철과 비슷한 대명의를 개진하고 있었다. 여하튼 이 발화를 통해 유가지식인 장한철의 대외인식의 기저가 드러나고 있다.

본선에 승선한 뒤에도 이들의 대화는 이어졌는데, 주로 조선의 상황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었다. 장한철은 유교국가로서의 조선의 면모를 임준에게 각인시켜 주었고,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어느 덧 ‘귀국()’이니 ‘상공()’이니 하며 서로 존대하게 되자, 장한철은 남쪽 바다 오랑캐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느껴워 한다.⁴⁴⁾ 무질서가 판을 치는 바다 위 선상에서 유교 질서가 구현되고 있으며, 섬 지역 한미한 출신의 문사가 일약 예의지방인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부상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함께 표류한 제주백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이미지였을 터다. 제주 출신이지만 제주를 넘어선 유가지식인으로서 거듭나고 싶었던 욕망의 투영이라 하겠다.

이런 장한철의 외부세계와의 대응과 분투는 2차 표착지인 청산도에선 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대접을 받는다. 도민()들의 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조씨녀()와의 하룻밤은 뜻밖의 성사였다. 그것은 양반인 장한철에 대한 특전이자 수혜였다. 이 때문인지 장한철과 섬사람들 사이엔 모종의 위계가 상정된다. 이는 그의 시선을 통해 잘 드러나기도 한다. 장한철은 청산도민이 직면한 현실, 즉 육지인의 횡포와 수탈을 목격하고⁴⁵⁾ 이 고통에 누구보다도 공명한다. 또한 이곳을 다스리는 관리

44) 『표해록』 정월 4일조. “ , , , ‘ ’ ; , ‘ ! ’ , , . , , : ! ”

45) 『표해록』 정월 10일조. “ , , , : ‘ _____ , _____ . ’ ”

가 이를 직시하고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보인다.⁴⁶⁾ 그렇지만 제법 분위가 있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조씨녀와의 하룻밤이나 청산도 문사 정재운()과의 만남에서 저들의 무식함과 문사들의 고루함을 확인한다.⁴⁷⁾ 이런 부분에서는 적잖은 불편함도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현실에 공명하면서도 또 다른 하위를 바라보는 장한철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처음 청산도를 스케치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와의 거리를 상정하고, 저들의 생활과 시스템을 짚은 것⁴⁸⁾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투과된 예라 하겠다.

이처럼 장한철은 외부세계와 접촉했을 때 때로는 자신의 출신을 숨겨야 했고, 때로는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그리고 청산도에선 저들을 위무하는 상위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제주문사로서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4. 제주지식인으로서의 면모와 그 정체성의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표해록』의 특징은 표류 과정에서 항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선비 장한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뱃사람들

46) 『표해록』 정월 10일조. “ , , , ? , , ”

47) 『표해록』 정월 11일조. “ , , , : ‘ , : .(중략) , , , ?”

48) 『표해록』 정월 8일조. “ , , , . , , , . , , , . , , , . ”

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바다와 지리에 대한 그의 지식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이 과정은 매우 낮은 풍경이다. 그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는 일개 선비였다. 더구나 이 배에서 관원 같은 지위도 있지 않았다. 그런데 표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는 이 배의 선장이 되어 갔다.⁴⁹⁾ 이 어색한 구도가 실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워낙 자신의 관점과 시선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그의 지식이 이 주도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표해록』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봐 온 소재가 있는가 하면, 작자의 해양과 관련한 지식이 축출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각종 서적이나 지도 등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주목하여 최근 이 저작이 다양한 문헌의 활용과 여러 해양 이미지를 수용하여 성립되었다는 연구도 나왔다.⁵⁰⁾ 확실히 신기루나 고래, 용오름 현상 같은 소재가 불과 10여 일 사이에 다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다 집적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거론한 연이은 배들과의 조우도 상당히 극적으로 비춰진다. 이런 점에서 좀 작위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런 여러 상황에서 발휘되는 장한철의 지적 표지들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다. 후대 표류서사를 견인한, 고려시대 탐라인 정일() 일행의 표류 사적과 최부의 『표해록』을 인용한 것이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각종 야사나 제주 및 해양과 관련된 지적 도구들은 저자 장한철의 역량을 판단하는데 요긴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그의 해양 관계 지식은 뱃사람들의 생리와 습속들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요긴했다.

먼저 장한철은 닛의 원리(12월 25일조)나 지남철로 방위를 측정하는 법(12월 26일조 등), 무인도의 생리(12월 28일조),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법(12월 28일

49)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50) 강문중, 앞의 글.

조) 등 적지 않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개 바다와 섬에 관련한 것들로, 그가 제주 출신이라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또한 사인()이면 으레 하는 점복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를 점치거나 앞날을 예측하곤 한다. 또 다양한 경전(『맹자』, 『장자』, 『시경』 등)과 사서(『사기』, 『고려사』 등)가 활용되고 있음은 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일반 표해록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은 문체, 이를테면 청산도에서 조씨녀와의 하룻밤 에피소드에는 전기()서사의 문체가 농후하며,⁵¹⁾ 죽은 뱃사람들을 위해 지은 제문()은 일반 제문과는 다른 글쓰기를 보여준다. 이런 점은 이 작품의 문학적 면모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뱃사람들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이 선상을 주도하게 된 계기는 그의 서적과 지도를 통한 지식이었다. 처음 노화도 앞 바다에서 표류가 시작된 후 배는 남쪽으로 하염없이 떠나려갔고, 어느 순간

51)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해록』 정월 11일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망망대해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장한철은 지도와 아화()들을 동원하여 뱃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유인하는 방책으로 삼는다. ‘일찍이 지도를 보니;52) ‘아화()로 앞사람들이 적어놓은 책에 들어있다’53) 같은 멘트가 25일, 26일조에 빈번하다. 그는 또한 유구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는데, 이를 두고 뱃사람들이 유구를 몇 번이나 다녀왔기에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기까지 한다. 장한철은 유구에 대한 이해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서적을 통한 지식이란 점을 분명히 한다.54) 더 놀라운 점은 자신이 직접 ‘남해제국도()’란 지도를 제작한 사실이다.

나는 일찍이 여러 책을 널리 고구하여 ‘남해제국도’를 제작한 적이 있다. 대개 탐라의 한라산이 큰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북쪽으로 조선과 연결돼 물길로 9백 80십여 리이다. 동서남 삼면은 바다만 있고 육지는 없어 아득하니 끝이 없다. 일본의 대마도는 한라의 동북쪽에 있고, 일기도는 정동쪽에 있으며, 여인국은 동남쪽에 있다. 한라의 정남쪽은 바로 대유구와 소유구이며, 서남쪽으로는 안남과 태국, 참파와 말레이 등의 나라가 있다. 정서쪽은 옛날 민()땅으로 지금의 복건성 가는 길이다. 복건 북쪽은 바로 서주()와 양주() 지역이다. 옛날 송나라가 고려와 왕래할 때 명주()에서 배를 띄워 향해하였으니, 이 명주는 곧 양자강이남 땅이다. 청주()와 연주()는 한라의 서북쪽에 있다. 이상의 여러 나라는 탐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거리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가장 먼 곳은 동해의 벽랑국으로 일본의 동쪽에 있고 거인국은 일기도의 동남쪽에 있는데, 사람의 발길이 통하지 않고 정교가 미치지 못하니 절로 세상과 떨어진 별세계이다. 옛날 탐라에 인물이 없었을 때 삼을라가 처음 강림하였으나

52)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 .(후략)’”

53) 『표해록』 12월 25일조. “(전략) , .”

54) 『표해록』 12월 26일조. “ : ‘ : ‘ ?’ : ‘ ?’”

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또한 삼을라와 벽랑국의 결연 전설도 소환하였다. 지식인 장한철은 이쪽에 대해서는 황당설로 보고는 있으나, 고려대에 탐라인 정일 일행이 대인국에서 생환한 사적을 끌어와 덧붙임으로써 유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 이 지도가 있었다면 조선후기 지도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지도 제작 정보는 주목할 만하다.⁵⁷⁾

이런 제주 중심의 지리 인식은 사공 이창석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진다. 배가 남양()으로 떠내려 오자 바다도 잔잔하고 파도도 험하지 않았다. 이 점을 궁금해 하는 사공에게 장한철은 이렇게 설명한다.

천하의 지형은 중국의 경우 평원과 광야가 많고, 그 변두리에 높은 산과 큰 못이 많다네. 우리나라 산천은 흐르고 솟음이 몹시 급하여 5리마다 산이 하나 있고, 10리마다 강이 있을 정도네. 지맥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 조선의 땅을 형성하였는데, 그 여맥이 남으로 내려와 소안도, 추자도, 제주도 등이 되고, 동남의 한 갈래가 대마, 사츠마, 대판 등 일본 땅이 되었다네. 동래에서 일본, 남해에서 탐라까지 수천리가 되고, 큰 바다가 가로 막고 있지만 바다 밑은 천봉만학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때문에 조선은 축급하고 뻣뻣한 산천이 된 것이라네. 그러니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 배를 운항하기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물 흐름의 충격으로 바다 밑의 봉우리와 골짜기에 진동하여 부딪치기 때문이라네. 대저 한라산 이남은 바다 밑이 평평하고 넓어서 더 이상 해저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길이 위험하지 않다네.⁵⁸⁾

57) 물론 이런 제주 중심의 지도와 관련하여 제주목사 (1653~1733)의 지시로 이 그림 『 』의 제1폭 ‘ ’ 같은 사례가 있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 이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강문중도 『표해록』 성립에 『탐라순력도』의 영향을 주목한 바 있다.(앞의 글)

58) 『표해록』 12월 30일조. “

한반도의 산맥과 남쪽 바다 지역, 그에 따른 수세()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조선 땅의 남쪽 지역은 물론 일본 도서까지 포함하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리 감각을 보여준다. 비록 해류의 문제로 수렴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육지의 시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조망이다. 게다가 그 설명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이 말을 들은 사공은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감탄하기까지 한다.⁵⁹⁾ 하지만 현재의 해양지질학에서는 이 현상을 바닷물의 온도나 판구조론 등으로 설명하기에 실제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과거 남해안과 제주, 그리고 제주 남쪽의 해양지리에 대한 장한철의 이해는 분명 독자적이다.

이런 그의 논리는 27일 밤에 남극노인성을 발견하고 그 이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더 확장된다.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남극노인성은 이전에도 널리 회자된 볼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에 장한철은 제주 남쪽 바다 위에서 이 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천체의 구조로 설파한다. 남극성은 남쪽에 위치한 별이기에 북쪽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 제주 아래에서만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⁶⁰⁾

59) 『표해록』 12월 30일조. “ : ‘ ! ”

60) 『표해록』 12월 27일조. “ : ‘ ”

그런데 이 남극성을 천체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 부분에 이본인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추가된 내용이 들어 있다. 김서일이 천체는 기운이 쌓여 형성된 것이어서 높고 낮은 형체가 있을 수 있느냐며 따지자, 장한철이 그 구조와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부분이다.⁶¹⁾ 이 부분은 실제 장한철이 설명한 내용은 아니었던 듯싶다. 다른 누군가가 가필한 것으로 판단된다.⁶²⁾ 아마도 19세기 천체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던 지식인의 가필이 아닌가 싶다.⁶³⁾ 어디까지가 장한철의 실제 지식이나는 점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제주를 중심으로 한 그의 해양과 지리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분명 제주지식인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표해록』은 젊은 제주문인 장한철의 지적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물이었다.

한편 『표해록』은 장한철의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의 지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이 점을 마지막으로 좀 더 따져보기로 한다. 먼저 호산도에서 해적 및 안남상선과 접촉했을 때, 보인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다. 임준을 향해서는

!“국립제주박물관본에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그의 지식을 두고, “비단 강해의 근원을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도 알고 있으니 평소 박식함을 알만 하다.[]”라고 감상평을 두주로 붙였다.

61) 국도본 『표해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참고로 친필본과 이 이본과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작품의 첫머리와 이 부분을 포함한 한두 군데에서만 차이가 난다.

63) 따라서 지금 장한철의 천체에 대한 지식과 18세기 후반 조선지식계에서의 이해의 거리를 따져보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재조지은’의 은혜를 설파하면서⁶⁴⁾ 중국과 조선의 선린우호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슬프다! 왜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뜻으로 보면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다. ‘한강에 다다라 강 위를 보노라면, 두 능의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조차 나지 않았네.’라는 시를 읊조릴 때면 나는 절로 소리치고 피눈물을 흘렸다. 저 왜놈들! 목을 벨 수 있다면 천 번이라도 칼을 들 것이고, 활로 쏠 수 있다면 만 번이라도 활을 당기리라! 대개 하늘이 만물을 창조함에 모두 사람들에게 이로우미 있는 법이다. 비록 태산 호랑이가 포악하나 그 가죽을 깔고 자면 내 몸이 편안하고, 영주()의 뱀이 독하나 약으로 쓰면 내 병이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오직 저 한 종자 왜놈은 사람들에게 할 올의 이로우미 없고, 해로우미 태산 호랑이와 영주 뱀보다 더 심하다. 하늘은 어찌 이놈들을 태어나게 했을까, 어찌 이놈들을 만들어냈을까. 당장이라도 천제에게 죄를 내리도록 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구나!⁶⁵⁾

『표해록』의 내용 중에 가장 격양된 부분으로, 장한철에게 왜는 그야말로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는 원수다.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치를 떠는가 하면, 윤안성(, 1542~1615)의 시구⁶⁶⁾를 인용하여 왜란 이후에도 저들이 우

64) 『표해록』 정월 2일조. “ , : ‘ , , ? ! , ? , , ? ’”

65) 『표해록』 정월 1일조. “○ ! , ‘ , , ! , , ; , , , , , ? ? ’”

66) 이 시구는 의 「(『 권1)의 3,4구이다. 160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화해의 취지로 선정릉을 도굴한 범인을 압송해 왔는데, 이를 조

리를 기만한 것에 분개한다. 뿐만 아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태산의 호랑이와 영주()의 뱀을 끌어와 ‘한 올도 이로움이 없는’ 이런 종자를 하늘은 왜 가만두지 않느냐면 한탄한다. 이 과도해 보이는 왜에 대한 적개심은 재조지은을 강조하며 무한한 애정으로 대하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는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물론 이 발화가 남해불에게 약탈을 당하고 난 뒤였고, 한편으로는 임준 일행에게 구조되기를 바랐던 절박한 사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각각 상황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의 외부에 대한 의식세계를 짐작하는데 이 반응은 상징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장한철의 지적 역량과 그의 대내외적인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는 하나, 다분히 의식적인 발화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해는 장한철 자신의 정체성일 일수도 있지만 중앙-정계 따위-을 향해 웅변하는 제스처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량과 정치적 견해를 어필하는 의도가 읽혀지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이 저작이 중앙정계에서 활용된 사례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래저래 장한철은 이 표류를 통해서 다양한 국면과 맞닥뜨렸고, 해당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의식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해록』은 장한철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도구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장한철의 『표해록』은 하위-뱃사람들-와 외부세계를 통해 불가명()의 상위에 대한 인정투쟁의 산물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 18세기 후반 한 제주 문인의 현실, 그 고뇌와 원망()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후반 제주 지식인이 가졌던 정체성 가운데 하나로 봐도 무방하겠다. 공교롭게도 육지인 누군가에 의해 전사된 것으로 판단되는 국도본 첫머리는 친필본에 없는 제주와 제주 문사의 현실이 스케치되어 있다. 이 부분을 인용해두면서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

정에서 받아들여 화답사를 보내게 되었다. 윤안성은 이것이 저들의 기만행위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참고로 앞 1,2구는 다음과 같다.

‘ ? ’

기를 기대해 본다.

탐라의 한라산은 바로 전겁의 영주이다. 그 웅장하고 기이한 경관은 세상 밖으로 높이 솟아 있다. 위로는 은하수를 잡을 수 있고, 아래로는 푸른 바다를 압도한다. 「우공()」에도 올라있지 않고 진나라의 교화도 미치지 않았다. 삼성()이 나라를 열지 않았다면 어찌 일엽편주로라도 세상과 통했으랴! 어지러운 때는 세상의 병화를 피해 온 자들의 거처가 되었고, 다스려질 때는 천리 길 푸른 파도를 건너 육로로 9백 리를 달려 서울에서 벼슬자리를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종 바다에 표류하거나 길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 이곳은 바로 난리 때는 낙원이지만 치세 때는 모진 땅인 것이다. 나는 태평성대에 불행하게도 여기에서 태어나 뛰어나고 호방한 선비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엎드린 채 뛰쳐나오지 못했다. 고기 잡고 땀나무하는 무리들 사이에 빠져서 마시며 즐기면서도 적이 오나라 계찰()이 상국(즉 노나라)의 소()를 들은 일을 그리워한지 오래되었다. 나라에서 특별히 멀고 외진 사람이 과거보기가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여, 개성()의 예처럼 승보 초시를 배설해 주었다.⁶⁷⁾

67) 국도본 『표해록』 첫머리. “

■ 참고문헌

□

『일성록』

『승정원일기』

, 『 』(『한국문집총간』 속90)

, 『 』(규장각소장본)

, 『 』(『한국문집총간』 속5)

, 『 』(임형택소장본)

, 『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 및 국립중앙도서관본)

『 』(동경대소장본)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탐라문화연구원, 1985.

장한철, 김지홍 역, 『표해록』, 지만지클래식, 2009.

이석범, 『제주전설집2』, 제주문화원, 2012.

정병욱, 『표해록』, 『인문과학』 6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961.

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68.

티모시 브룩, 조명현·손고은 역, 『셀턴의 중국지도』, 너머북스, 2018.

□

강문중, 「장한철 <표해록>의 텍스트 형성 동인 연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23집,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37~60쪽.(DOI: 10.35158/cisspc.2020.10.23.37)

- 김경옥, 「18세기 장한철의 『표해록』을 통해 본 해외체험」, 『역사학연구』 48집, 호남사학회, 2012, 151~173쪽.(UCI: G704-001257.2012..48.007)
- 김미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선비 장한철과 섬사람들」, 『동양학』 78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1~20쪽.(DOI: 10.17320/orient.2020..78.1)
- 김새미오,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집, 영주어문학회, 2010, 93~118쪽.(UCI: G704-SER000010594.2010.20..011)
- 서인석,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143~160쪽.(UCI: 1410-ECN-0102-2008-710-000495928)
- 안대회, 「여와 목만중의 표류인 전기 「김복수전」 연구」, 『한국문화』 37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 61~84쪽.(UCI: G704-001253.2014..68.003; DOI: 10.22943/han.2014..68.003)
- 윤치부,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집, 한국고소설학회, 1996, 341~382쪽.(UCI: 1410-ECN-0102-2009-810-009248837)
- 정솔미, 「장한철 『표해록』의 야담적 전이양상-『기리총화』와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7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241~279쪽.(UCI: 1410-ECN-0102-2018-800-003747536)
- 정환국, 「동아시아 서설」, 『대동문화연구』 100집, 대동문화연구원, 2017, 295~320쪽.(DOI: 10.18219/ddmh..100.201712.295)
- _____, 「조작되는 하위/하위주체들-횡재 소재 표류서사의 변이양상과 하위주체의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131~158쪽.(UCI: 1410-ECN-0102-2019-800-001643702)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사회와 역사』 27집, 한국사회사학회, 1991, 178~222쪽.
- 홍진옥, 「유구 세자 살해설과 김려의 <유구왕세자외전>」, 『대동한문학』 47집, 대동한문학회, 2016, 121~169쪽.(UCI: G704-001498.2016.47.47.007)
- 후지타 아키요시(), 「17 「 」

『 『 』 』

(천리대 조선학회 2019년 발표집).

|| Abstract

**The identity of the 18th-century literati in Jeju Island:
Jang Han-cheol's travel record *Pyohaerok* (漂海錄)**

Jung, Hwan-Kuk

This article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18th-century literati in Jeju Island by analyzing Jang Han-cheol's travel record *Pyohaerok* (漂海錄). Despite how unique of a place that the literature of Jeju Island occupies in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studies often express a land-oriented perspective that otherizes the Jeju literature. This trend prevents any opportunity to properly approach to the subject itself. In order to derive more accurate analysis, the records of native Jeju scholars and their own perspective need to be examined thoroughly. Thus, *Pyohaerok* has been selected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native scholar's thoughts and viewpoint. One of the many distinct features of *Pyohaerok* is that the writer's voice of the inner world is expressed in harmony with his reaction to the outer world. In this regard, how the piece had been used to disclose the capacity of scholars in Jeju is identified based on analyzing Jang's life and the circumstances *Pyohaerok* being read at the government authorities. Secondly, the aspects of conflicts on board and the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are also analyzed in this study. It is derived that Jang had improved the understanding of the 'Jeju people' and the 'sailors' through the conflicts in the drifting ship. He had made a connection to the outer world by encountering with the pirates and merchant ships as well. In those particular situations, he would project his identity as a Confucian scholar into the circumstances. Lastly, a feature that distinguishes Jang from

other ordinary scholars is discovered by analyzing his knowledge in the usage of various records and maps. In conclusion, *Pyohaerok* reveals the identity and self awareness of Jang Han-cheol, a Jeju scholar ambiguously positioned in the hierarchy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 ● Jang Han-cheol (), *Pyohaerok* (), Drifting experience, Jeju Island and the people, Jeju scholars, Identity

■ 논문투고일 : 2021. 3. 15 ■ 심사완료일 : 2021. 4. 13 ■ 게재확정일 : 2021. 4. 14

